

3. 여호와와 날의 엄숙함 (2:1-11)

2장에서는 여호와와 날을 더 발전시켜서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외적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날이 여호와와 날이다. 2장에서는 여호와와 날의 심판의 무서운 것을 이야기하고(2:1-11), 자연스럽게 그 준비로서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2:12-17).

1) 캄캄한 날

¹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와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²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뻑뻑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다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는 나팔 소리와 호각과 함께 임하고, 그날은 “어둠” “캄캄한 날” “뻑뻑한 구름”이 있는 날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임할 때와 비슷하다(출 19:9; 20:21; 신 4:11; 5:22). 산 위에 불이 있고 그 밑에 흑암과 구름이 덮인 것처럼, 지금 뻑뻑한 구름이 있는데 산꼭대기에는 새벽빛이 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여서 모세에게 그들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나아가라고 하였다(출 20:19).

이 장면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임하신 사실에 근거한 것인데 두 가지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시내산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셨는데, 요엘서에서는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해서 임하실 때에 나팔을 분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에 부는 나팔 소리는 외적이 침입할 때에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는 나팔 소리와 묘하게 일치한다. 여호와께서 다른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나팔이 곧 여호와와 날의 임하심의 나팔이 된다.

둘째의 새로운 면은 어둠이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하실 때에는 빛과 어둠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동시에 가리셨지만, 요엘서에서의 어둠은 심판을 의미한다. 메뚜기 재앙이 애굽에 어둠을 가져온 것처럼(출 10:15), 메뚜기로 비유된 강력한 부대가 몰려 오기 때문에 어둠이 임한다.

이처럼 요엘서에서의 어둠은 심판의 면이 더 두드러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시온에 임하신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백성에게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땅의 거민은 더 두려워한다. 일반적으로 떠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떨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들을 떨게 하신다.

2)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 (2:3-11)

- ³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 ⁴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 ⁵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개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향오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 ⁶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낮빛이 하얗졌도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학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요엘 선지자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일어난 심판을 근거로 장래에 있을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야기한다.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심판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침입자에 대한 묘사도 자연히 이중적이다.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자들이지만, 이차적으로는 마지막 심판 때의 천사들도 가리킨다.

현재의 심판과 종말론적인 심판의 이중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엘 선지서에서는 다양한 문학적 표현들이 사용된다. 2장에서는 1장 마지막에 사용된 산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메뚜기 떼, 외적, 여호와의 심판 등을 다중적으로 표현한다.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이 침입하는 것을 산불로 비유한다(2:3-6). 1장의 수많은 메뚜기가 2장에서는 산불로 바뀌었다. 화마(火魔)가 세상을 훑고 지나가면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는데 화마가 한번 할퀴고 지나가면 이제는 황무한 들이 되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과란 들이 붉은 산불이 한번 지나면 검은 색의 황무한 땅으로 바뀐다. 세상이 바뀌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2:4-5에서는 산불이 타는 모습을 말이 달리는 것으로 비유한다. 말이 갈기를 세우고 달리는 것처럼 불이 맹렬하게 다른 곳으로 향하여 퍼진다. 산불이 넘실거리고 산꼭대기들을 삼키면서 나아가는 모습은 말이 갈기를 세우고 달리는 것과 같다. 지푸라기가 불에 타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마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달린다(2:5). 한 번 탄 곳은 지나치고 새로운 곳으로만 향하는 것이 전투를 위해 진을 벌이며 나아가는 것과 같다. 말의 갈기를 시각적으로 묘사할 뿐 아니라 불이 초개를 태우는 소리와 마차가 달리는 소리를 청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산불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고 고통하였다(2:6). 놀라서 하얗게 된 그들의 얼굴은 붉은 산불과 현저하게 대조된다. 빨간 것과 하얀 것, 시끄러운 것과 잠잠함이 대비된다. 산불은 힘있게 뻗어 나가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고통한다.

- ⁷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향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⁸ 피차에 부딪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처 아니하며
⁹ 성 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침입자의 모습이 ‘메뚜기’에서 ‘산불’로, 이제는 ‘병거’로 구체화된다. 메뚜기의 소음이 병거의 소리로 바뀐다. 산불이 모든 장벽을 넘고, 심지어 시냇물을 건너서 모든 것을 삼키듯이 침입자들은 불꽃이 초개를 사르듯이 모든 것을 삼킨다. 성이나 집으로 피하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불길이 서로 충돌하지만 서로 부딪치지 않고 연합하는 것처럼 그들은 조직을 잘 이루어서 공격한다. 군기가 잘 잡힌 군대인 그들은 서로 부딪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공격한다(2:8).

그들은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가볍게 성 안으로 뛰어 들고 성 위로 달린다. 또한 무엇을 끄집고서 집도 가볍게 오르고 창문으로 들어간다. 성, 성벽, 집, 창으로 조금씩 좁혀지면서 구체적으로 묘사한다(2:9).

산꼭대기에서 달리고 성을 가볍게 뛰어 넘고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목표물을 가볍게 공격하는 이 장면을 보면, 이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적인 존재’처럼 보인다. 어떤 장애물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들은 어떤 장애물도 우습게 여기고 통과하며 스스로는 아무런 상처나 피해를 입지 않는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 넘는 침입군의 모습은 메뚜기 떼보다는 산불이 잘 표현한다. 그 침입군이 누구인가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다. 메뚜기, 산불, 외국 군대, 천사가 다 적용될 수 있다. 산불의 효과적인 공략은 심판의 여러 가지 단계를 잘 그려 낸다.

- ¹⁰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감감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메뚜기 떼와 산불 연기로 하늘이 가리워지고, 말발굽 소리로 땅이 진동하는 모습이다. 전차 때문에 땅이 진동하여 먼지로 하늘이 흐려진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는 것은 실제로 자연 만물에도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표시한다. 여호와의 심판이 나타나면 자연 만물에도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여기에서도 이중적으로 표현되었다.

11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이방인의 군대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분은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이다. 그분이 군대 앞에서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 군대는 메뚜기와 산불로 비유되는 것과 같은 심판을 행하였다. 그들이 메뚜기와 산불처럼 예루살렘에 오는 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예루살렘이 멀리에서 온 이방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를 당한 것은 정치 군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기에서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외국 군대로 해석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환상이라고 본다.¹¹⁾ “그의 군대”에 대한 해석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해석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고 후반부에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표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외국 군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날이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도 표시하기 때문에 그의 군대가 천사를 가리킨다는 해석도 포용할 수 있다. 요엘서에서는 여러 가지 상(像)들이 중첩되면서 시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 가지로만 확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천군천사의 지휘관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도 묘사하고 있다.

3. 회개하라 (2:12-17)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는 군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준비를 바르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표징을 보이자마자 우리는 회개하여야 한다.

1) 마음의 변화 (2:12-14)

11) 외국 군대로 해석하는 주석가로는 칼빈, 팔마 로버슨을 들 수 있고, 종말론적인 군대로 해석하는 학자로는 Wolff, R. Dillard 등을 들 수 있다.

12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1) 여호와의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여호와께서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셨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하지 않아도 금식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주님께 나아오라고 초청하셨다. 금식은 단순히 먹을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일인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회개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다. 돌아오면 주님께서 받아 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이것은 영광스러운 초청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여기에서 “돌아오라”는 말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재난을 정치적으로만 이해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민족적 수치로 생각하여 옷만 찢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하였을 때에 애국심이 있는 자들이 그리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하였다. 국권을 빼앗긴 일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다.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돌이켜서 겸손히 여호와를 구해야 한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그들은 언약의 저주를 받았을 때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대하 7:13-14).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외형적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사 58:3).

회개는 자기의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하였지만 그리스도에게 향하지 않았다(마 27:3-5).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에게 향하였다. 회개한 죄인은 자신에게로 돌아서기보다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다. 회개는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자기의 행동만을 돌이킬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잘 해야 가룟 유다 정도가 된다.

(2) 회개의 근거: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분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자비로우신 분임을 상기시킨다. 여호와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

그분은 엄한 심판자만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분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명히 계시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고 40일이 못되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자비를 여호와의 본질로 계시’하셨다(출 34:6-7).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다. 이 선언으로 여호와는 언약의 자비가 있으신 분임을 계시하셨다. 지금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이다.

(3) 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복: 소제와 전제의 회복

여호와의 참된 인자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 그러나 금식하면서 회개한다고 자동적으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니다. 요엘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 부분을 마친다. 금식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그 해결에 있어서도 주님께 맡기는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대하 20:12; 욥 3:9).

여호와께서 진심으로 돌이킨 자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 회복은 포괄적인 것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징벌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모든 면에 미쳤으므로 이에 대한 해별도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14에서는 그들에게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로 모든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복을 요약하였다. 경제적인 풍요를 주시고 정치적인 안정을 주실 뿐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민족 사명도 다시금 감당하게 하신다.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복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표현하는 말이다. 밭의 소산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다시 받아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 된다. 자기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는 자에게는 매력이 없는 말이겠지만 하나님의 경영을 깨달은 자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포괄성을 약속하는 핵심적인 말이 될 것이다. 성전의 제사가 그쳤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잃은 처녀처럼 슬피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 언약의 회복의 핵심이 될 것이다(참조, 1:8-10).

2) 회개의 방법 (2:15-17)

¹⁵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¹⁶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17 여호와께 수종 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
 다

1절에서는 외적의 침입을 알리려고 나팔을 불었지만 이제는 금식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 외적이 침입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할 일은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임을 같은 나팔 소리로 표현하였다. 외적이 침입하지만 방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라는 이야기는 없다. 오히려 그들에게 금식일을 정하고 여호와 앞에 모이라고 말씀하신다. 마치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의 침입 앞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듯이(삼상 7:7-12), 이제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할 것을 명하셨다.

성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온다. 장로와 어른뿐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나온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랑과 신부도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신랑은 1년간 군대에 가는 것을 면제하여 주었다(신 24:5). 이것은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국방의 일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을 잘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한 시기이다. 신혼 부부도 그들의 즐거움을 뒤로 하고 회개하는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금식하며 회개해야 한다.

회개할 때에 그들은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서서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 제사장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기도한다. 속죄소와 청동 제단 사이에서 속죄소에 들어갈 자세를 하고서, 즉 속죄소를 향해서 회개해야 한다.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일차적으로 구하는 것은 여호와와 이름이다.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 여호와와 이름이 열국 중에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였다. 다른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시 42:3, 10; 79:10; 115:2) 라고 말하며 여호와와 이름을 모욕하였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들 때문에 여호와와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회복과 물질적인 번영보다 여호와와 영광을 앞에 두어야 했다.

여호와와 이름이 열방 가운데서 높이 되면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된 데서 해방될 것이다. 그러나 순서를 바꾸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회복만을 구한다면 이것은 정당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다. 자기의 어려움만 호소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자기의 어려움만을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 가운데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다. 참으로 회개한 자는 여호와와 이름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할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다.

2:1-17 복습 문제

1. 1) 여호와의 낯에 대한 요엘서의 표현은 어떤 점에서 시내산의 모습과 비슷했습니까?
 2) 요엘서의 여호와의 낯에 대한 묘사는 어떤 두 가지 점에서 축에굽기과 다릅니까?
 3) 어떻게 희적의 침입을 알리는 나팔 소리과 여호와의 인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일치할 수 있습니까?
2. 1) 여호와의 낯을 묘사하기 위해서 2장에서 사용하는 풍상들은 무엇입니까?
 2) 여호와의 심판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풍상들도 이중적으로 사용됩니다. 산봉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3) 산봉이 어떤 점에서 침입자의 모습을 메뚜기보다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4) 10절에서 일월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는 것은 종말론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5) 11절의 “그의 군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호와의 낯의 이중성과 관계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3. 1) 여호와의 낯이 다가옴을 보면서 선지자는 무엇을 준비하려고 했습니까?
 2) 여호와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동시에 어떤 말씀을 보내셨습니까? (2:12)
 3) 그 말씀은 어떤 점에서 소망이 됩니까?
 4) ‘돌아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5) 희개를 내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무엇을 놓치는 것입니까?
 6) 희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출 34:6-7)
 7) 돌이킨 자에게 소제와 전제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4. 1) 희개를 위해서 왜 모든 백성이 모입니까?
 2) 희개의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은 일차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했습니까?
 3)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 결과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